

오늘도 역사를 학습해요!!

01	제국주의 국가의 등장
제국주의의 의미	• 19세기 후반 열강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 건설을 추진한 정책
제국주의의 특징	• 독점 자본주의 등장(원료 공급지, 상품의 판매 시장 필요), 침략적 민족주의, [] , 인종주의(백인의 우월성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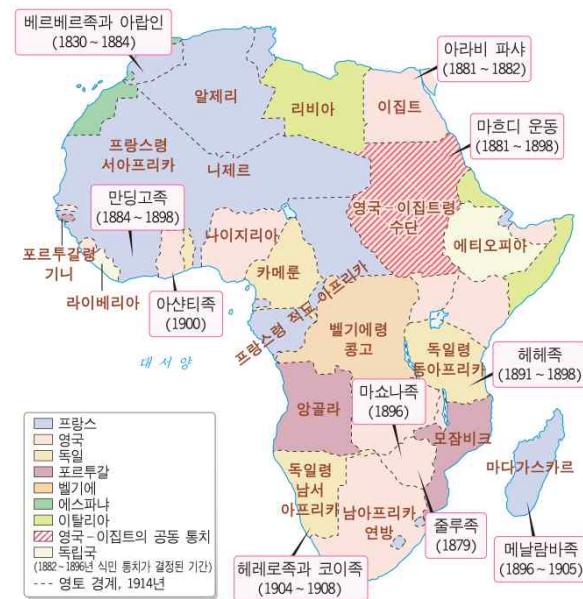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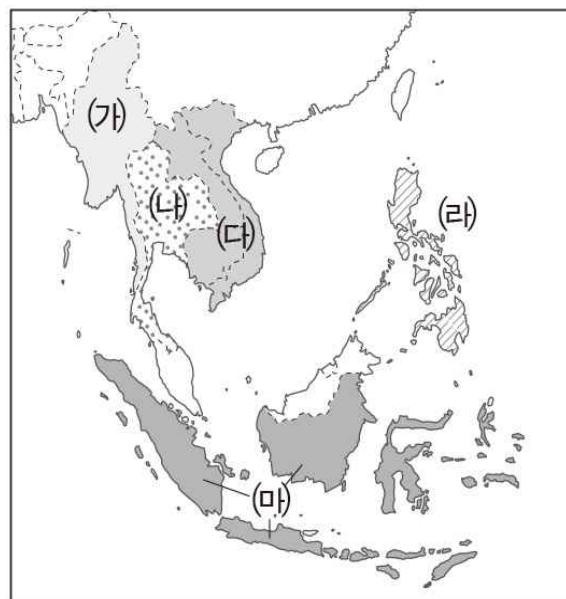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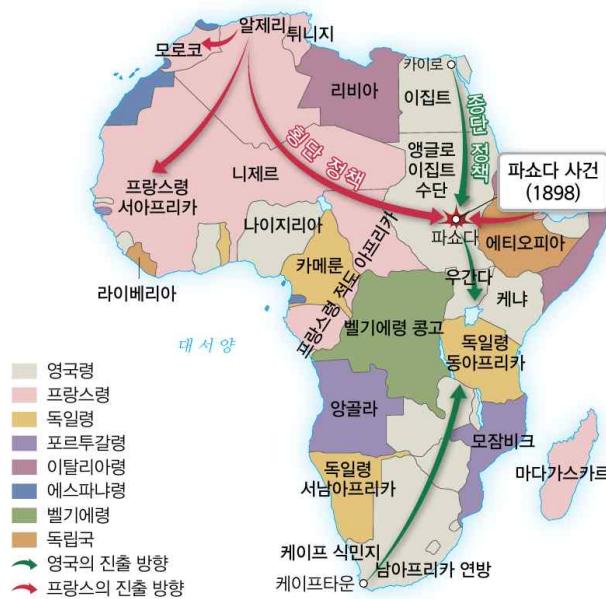
나는 우등 민족에게 권리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등 민족을 교화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나는 프랑스의 식민 정책,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공, 코친차이나로 나아간 정책, 튀니지, 마다가스카르로 진출한 정책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진리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우리 해군은 확실한 정박지, 요새, 병참 기지가 없다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 쥘 페리

02	제국주의와 세계 분할												
아프리카 분할	<table border="1"> <tr> <td>[]</td><td>• 수에즈 운하 관리권 차지, 이집트 보호국화, 남아프리카 연방 조직, 토착민 협력자에게 통치 위임(간접 지배)</td></tr> <tr> <td>[]</td><td>• [] 정책(카이로~케이프타운,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연결 추진)</td></tr> <tr> <td>[]</td><td>• 알제리 장악, 튀니지 보호령화, 마다가스카르 차지, 사하라 사막 확보, 콩고 분할, 토착민에 대한 통화 정책 구사</td></tr> <tr> <td>[]</td><td>• [] 정책(알제리~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를 동서로 연결 추진)</td></tr> <tr> <td>[]</td><td>•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동아프리카(루안다·우룬디), 케냐 이남 탕가니카, 카메룬·[]·콩고 북부 등 차지</td></tr> <tr> <td>[]</td><td>• 레오플드 2세(재위 1865~1909),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차지</td></tr> </table>	[]	• 수에즈 운하 관리권 차지, 이집트 보호국화, 남아프리카 연방 조직, 토착민 협력자에게 통치 위임(간접 지배)	[]	• [] 정책(카이로~케이프타운,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연결 추진)	[]	• 알제리 장악, 튀니지 보호령화, 마다가스카르 차지, 사하라 사막 확보, 콩고 분할, 토착민에 대한 통화 정책 구사	[]	• [] 정책(알제리~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를 동서로 연결 추진)	[]	•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동아프리카(루안다·우룬디), 케냐 이남 탕가니카, 카메룬·[]·콩고 북부 등 차지	[]	• 레오플드 2세(재위 1865~1909),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차지
[]	• 수에즈 운하 관리권 차지, 이집트 보호국화, 남아프리카 연방 조직, 토착민 협력자에게 통치 위임(간접 지배)												
[]	• [] 정책(카이로~케이프타운,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연결 추진)												
[]	• 알제리 장악, 튀니지 보호령화, 마다가스카르 차지, 사하라 사막 확보, 콩고 분할, 토착민에 대한 통화 정책 구사												
[]	• [] 정책(알제리~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를 동서로 연결 추진)												
[]	•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동아프리카(루안다·우룬디), 케냐 이남 탕가니카, 카메룬·[]·콩고 북부 등 차지												
[]	• 레오플드 2세(재위 1865~1909),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차지												
<table border="1"> <tr> <td>[]</td><td>• 양골라, 모잠비크 지배</td></tr> <tr> <td>[]</td><td>• 리비아·소말리아 확보, [] 공략(아도와 전투 패배)</td></tr> </table>	[]	• 양골라, 모잠비크 지배	[]	• 리비아·소말리아 확보, [] 공략(아도와 전투 패배)									
[]	• 양골라, 모잠비크 지배												
[]	• 리비아·소말리아 확보, [] 공략(아도와 전투 패배)												
<table border="1"> <tr> <td>[] 사건</td><td>• 영국 ↔ 프랑스 → 프랑스의 철수, 나일강과 콩고강을 경계로 양국의 영향권을 나누기로 합의(1898)</td></tr> <tr> <td>[] 사건</td><td>• [] ↔ 프랑스, 제1차[팅헤르(1905)]·제2차[야가디르(1911)],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여 독일이 퇴각 빌헬름 2세의 보좌관들은 모로코에 대한 독일의 관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빌헬름 2세에게 그곳을 방문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모로코는 독립국이기는 했으나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였다. …… 위기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독일 정부는 모로코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대통령 루베는 독일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독일은 끝까지 국제회의를 고집했다. 결국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오히려 독일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모로코에서는 프랑스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td></tr> </table>	[] 사건	• 영국 ↔ 프랑스 → 프랑스의 철수, 나일강과 콩고강을 경계로 양국의 영향권을 나누기로 합의(1898)	[] 사건	• [] ↔ 프랑스, 제1차[팅헤르(1905)]·제2차[야가디르(1911)],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여 독일이 퇴각 빌헬름 2세의 보좌관들은 모로코에 대한 독일의 관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빌헬름 2세에게 그곳을 방문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모로코는 독립국이기는 했으나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였다. …… 위기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독일 정부는 모로코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대통령 루베는 독일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독일은 끝까지 국제회의를 고집했다. 결국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오히려 독일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모로코에서는 프랑스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 사건	• 영국 ↔ 프랑스 → 프랑스의 철수, 나일강과 콩고강을 경계로 양국의 영향권을 나누기로 합의(1898)												
[] 사건	• [] ↔ 프랑스, 제1차[팅헤르(1905)]·제2차[야가디르(1911)],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여 독일이 퇴각 빌헬름 2세의 보좌관들은 모로코에 대한 독일의 관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빌헬름 2세에게 그곳을 방문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모로코는 독립국이기는 했으나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였다. …… 위기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독일 정부는 모로코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대통령 루베는 독일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독일은 끝까지 국제회의를 고집했다. 결국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오히려 독일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모로코에서는 프랑스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table border="1"> <tr> <td>아시아와 태평양 분할</td><td> <table border="1"> <tr> <td>영국</td><td>•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td></tr> <tr> <td>프랑스</td><td>•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td></tr> <tr> <td>[]</td><td>•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td></tr> </table> </td></tr> </table>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	<table border="1"> <tr> <td>영국</td><td>•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td></tr> <tr> <td>프랑스</td><td>•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td></tr> <tr> <td>[]</td><td>•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td></tr> </table>	영국	•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	프랑스	•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	•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	<table border="1"> <tr> <td>영국</td><td>•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td></tr> <tr> <td>프랑스</td><td>•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td></tr> <tr> <td>[]</td><td>•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td></tr> </table>	영국	•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	프랑스	•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	•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						
영국	•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												
프랑스	•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	•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												
<table border="1"> <tr> <td>아시아와 태평양 분할</td><td> <table border="1"> <tr> <td>영국</td><td>•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td></tr> <tr> <td>프랑스</td><td>•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td></tr> <tr> <td>[]</td><td>•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td></tr> </table> </td></tr> </table>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	<table border="1"> <tr> <td>영국</td><td>•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td></tr> <tr> <td>프랑스</td><td>•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td></tr> <tr> <td>[]</td><td>•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td></tr> </table>	영국	•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	프랑스	•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	•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	<table border="1"> <tr> <td>영국</td><td>•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td></tr> <tr> <td>프랑스</td><td>•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td></tr> <tr> <td>[]</td><td>•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td></tr> </table>	영국	•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	프랑스	•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	•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						
영국	•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												
프랑스	•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	•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												
<table border="1"> <tr> <td>아시아와 태평양 분할</td><td> <table border="1"> <tr> <td>영국</td><td>•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td></tr> <tr> <td>프랑스</td><td>•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td></tr> <tr> <td>[]</td><td>•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td></tr> </table> </td></tr> </table>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	<table border="1"> <tr> <td>영국</td><td>•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td></tr> <tr> <td>프랑스</td><td>•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td></tr> <tr> <td>[]</td><td>•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td></tr> </table>	영국	•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	프랑스	•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	•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	<table border="1"> <tr> <td>영국</td><td>•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td></tr> <tr> <td>프랑스</td><td>•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td></tr> <tr> <td>[]</td><td>•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td></tr> </table>	영국	•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	프랑스	•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	•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						
영국	• [] 전투 승리, [] 식민지화[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												
프랑스	• [] 전투 패배, []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	•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와 전쟁(필리핀·괌 식민지화, 쿠바 보호국화, 1898)												

02	제국주의와 세계 분할	독일	• 태평양의 비스마르크 제도, 마셜 제도 등 점령 • 시베리아 개척, 남하 정책을 통해 흑해 방면에서 오스만 제국 압박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		

03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리비아	• 오스만 제국의 지배() → []의 식민 지배, 알 무크타르의 저항 운동(1912~1931)
수단	• 이집트·영국의 지배, 무함마드 아흐마드의 [](구원자) 운동(1881~1898), 군대 양성과 토지 개혁 추진
에티오피아	• 메넬리크 2세(철도·학교 설립, 신식 군대 창설 등 개혁 정치), [] 전투 승리(↔ 이탈리아, 1896), 아디스아바바 조약으로 독립 인정
줄루 왕국	• 샤카 줄루(부족을 통합해 왕국 건설), [] 전투 승리(↔ 영국, = 줄루 전쟁, 1879), 영국의 식민지
나미비아	• []의 무장봉기(독일 로타르 폰 트로타 장군의 무력 진압, 1904)
탄자니아	• 마지막 운동(킨 제케틸레 주도, 목화를 뽑으며 봉기, 1905~1907) → 독일의 초토화 전술



(가) _____, (나) ___, (다) _____령 인도차이나 연방
(라) _____, (마) _____

오늘도 역사를 학습해요!!

▶ (가) = ___, (나) = ___.

아프리카의 수단 남부 백나일강가에 있는 작은 도시 파쇼다에서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이 충돌했다. (가)은/는 아프리카 식민지를 동서로 연결하기 위해 파쇼다가 필요했다. 반면 (나)은/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요충지로 파쇼다가 필요했다. 이 충돌은 (가)의 양보로 마무리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된 양국 간 긴장은 (나)이/가 이집트를, (가)이/가 모로코를 지배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이집트와 모로코 국민의 운명은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두 강대국의 협상과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제멋대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 (가) = ___.

반란군을 진압하려는 모로코의 술탄을 도와주기 위해 프랑스는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자 남서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한 (가)은/는 프랑스가 알헤시라스 협약을 어겼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부 모로코의 광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가)은/는 자국의 광산 회사인 마네스만에 채굴권을 넘겨줄 것을 프랑스에 요구했고,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함 판터호를 아가디르 항구에 파견했다. 이에 대해 영국은 무모하게 힘을 과시하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요구를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

프랑스는 많은 군대를 사이공에 모아 놓고 베트남에 대해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베트남 국왕은 칙령 대사를 보냈다. 대사가 국새를 받들고 사이공에 이르니 프랑스인들은 무력을 앞세워 조약을 맺었다. …… 조약이 체결된 후 다시 부속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중에는 '베트남은 대프랑스국의 보호를 원하는 이상 다른 외국과 교섭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이것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 『월남망국사』 -

▶ (가) = ___.

베트남은 독립국이오. 프랑스는 식민지 민중을 개화시킨다고 말하지만, 우리 국민을 노예로 삼았을 뿐, 베트남인은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소. …… 우리는 이제 군주제를 지지하지 않소. 겸찰관은 내가 혁명을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수많은 애국자가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여 형장으로 끌려갔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소. 나는 그 지도자요. 나는 이 세계 사람들의 자유와 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할 따름이오. 베트남에 자유를 달라. 민주 정부를 만들라.

[해설] 이 사료는 상하이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된 (가)이/가 하노이에서 열린 군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그는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베트남 유신회를 결성하고, 신해혁명에 자극받아 중국 광동에서 베트남 광복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혁명 운동을 지속하면서 본국에서의 무장봉기를 계획하였다.

04 제1차 세계 대전					
전쟁 전의 상황	독일의 대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 고립화 추진(체결(~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탈리아, 1882)) (재위 1888~1918) : 대외 팽창 정책(베를린~비잔티움~바그다드 연결 추진), 사건 (지역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후원) 표방 → (러시아가 세르비아 후원)와 충돌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대영제국령 케이프타운 총리 세실 로즈(1853~1902), 카이로~케이프타운~콜카타 연결 추진] 빌헬름 2세의 정책에 맞서 성립[러·프 동맹(1894) ⇒ 영·프 협상(1904) ⇒ 영·러 협상(1907)]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08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병합하여 계 민족의 독립 저지 시도 			
	전쟁	<table border="1"> <tr> <td>1912</td><td>• 제1차 동맹(세르비아·불가리아·그리스 등) ↔ 오스만 제국</td></tr> <tr> <td>1913</td><td>• 제2차 동맹(세르비아·그리스) ↔ 불가리아</td></tr> </table>	1912	• 제1차 동맹(세르비아·불가리아·그리스 등) ↔ 오스만 제국	1913
1912	• 제1차 동맹(세르비아·불가리아·그리스 등) ↔ 오스만 제국				
1913	• 제2차 동맹(세르비아·그리스) ↔ 불가리아				
전쟁의 발발과 전개 (1914~1918)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세르비아에게 가브릴로 프린치프,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암살, 1914. 6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선전포고 ⇒ 동맹국과 협상국의 참전 ⇒ 불가리아의 동맹국 가담(1914), 의 협상국 가담(1915) 독일의 벨기에 침공(1914), 프랑스 진격 ⇒ 전투(914)·송 전투(1916) ⇒ 전쟁의 교착 상태, 참호전 전개 영국 해군의 독일 봉쇄 ⇒ 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1917) ⇒ 참전[루시타니아호 침몰(1915)·치머만 전보 사건(1917), 1917. 4월] 후세인·맥마흔 비밀 서한(1915), 사이크스·피코 협정(1916), 벨루아 선언(1917) 조약(러시아 소비에트 정부~독일·오스만·불가리아 등 동맹국과의 강화 조약, 1918. 3월) 동맹국의 항복 ⇒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 ⇒ 11월 혁명 발생(1918) ⇒ 빌헬름 2세 폐위(네덜란드 망명), 선포 연합국과 독일 임시 정부의 휴전 조약 ⇒ 전쟁 종결(1918. 11월) 				
전후 처리 노력	(1919. 1.~192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미국·프랑스· 등 전승국 대표 주도, 의 14개조 평화 원칙(민족 자결주의 등)에 따라 진행 전승국의 이익과 에 대한 응징이 강하게 작용 			
	조약 (1919.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승국과 간에 체결(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 체제 성립 : 모든 국외 식민지 상실, 지방 프랑스에 양도, 막대한 전쟁 배상금, 군비 대폭 축소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창설 (1920.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최초의 국제 평화 기구(본부 제네바) 의 불참, 독일·소련 제외(독일은 1926년, 소련은 1934년 가입), 군사적 제재 수단 미비 			
	평화 유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싱턴 회의(군비 축소, 1921~1922), 로카르노 협정(1925), 켈로그·브리앙 조약(부전 조약, = 파리 조약, 1928) 			
전후 민주주의의 발전	제정 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공화국 등), 제국(→ 무스타파 케말, 튀르키예 공화국 선포, 1923) 			
	보통 선거권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와 여성의 참정권 확대[영국의 제5차 선거법 개정(만 21세 이상의 보통 선거 규정, 1928)] 			
독일의 배상금 문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스안(1924) ⇒ 영안(1929) ⇒ 로잔 회의(1932) 				

▶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플랑드르 해안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길게 이어진 전선에서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참호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양상은 전쟁 막바지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서부 전선에 비해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이 선전했다. 독일은 수적으로 월등한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하고 오스트리아·헝가리를 지원하여 러시아와 대치하였다. 전쟁은 바다에서도 일어났다. 바다에서는 영국 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해 병력과 물자의 수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독일은 영국 함대를 공격했지만 해상 봉쇄를 돌파하지는 못하였고, 잠수함으로 군수 물자의 수송 선박을 공격해 연합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

전쟁 초기에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쌍방의 전력이 비등하여 한쪽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고 결국 전쟁은 장기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한 이후, 연합국은 반격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독일군은 패색이 짙어지자 내부적으로는 암암리에 종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면 중 동맹국의 군대가 차례대로 투항하고 말았는데, 불가리아를 필두로 하여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잇달아 연합국 측에 항복하였다. …… 독일 제국의 킬 군항에서 전쟁 중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품은 해군에 의한 폭동이 일어났다. …… 이 와중에 전쟁 전 제국 의회에서 유명무실한 다수당의 지위에 있었기에 집권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사회 민주당(SPD)에게 출지에 정권이 이양되었고, 이들은 독일이 군주제를 포기하고 공화정으로 전환한다고 즉각 선포하였으며, 이들의 주도로 연합국 측과 정전 협정이 맺어졌고, 양 쪽 합해 약 9백만 명이 전사한 이 전쟁은 끝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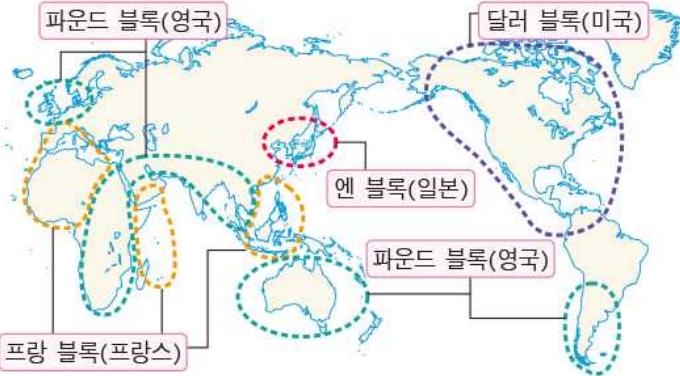
- 「베르사유 조약과 유럽 평화의 이상」 -

05 러시아 혁명(1917)

혁명 전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 계급 성장,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1898) 등 사회주의 정당 등장 ██████ 사건(1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일 전쟁에서 열세, 차르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 고조, 시위 전개·무력 진압 : 니콜라이 2세(재위 1894~1917)가 두마(의회)의 입법권 보장 및 개혁 약속(10월 선언) 두마 의회 개설(1906) 	
	██████ (러시아력 2월) 혁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세계 대전의 장기화로 물자 부족,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 저하 식량 배급, 전쟁 중지, █████ 타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병사 소비에트 중심의 혁명 발생[페트로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 니콜라이 2세 퇴위 → 케렌스키 █████ 수립
혁명의 전개	██████ (러시아력 10월) 혁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전쟁 지속, 토지 개혁 지연 등 개혁 실패 노동자·병사 소비에트와 █████의 대립 전쟁 반대, 모든 권력의 소비에트 이양 등을 주장하는 레닌 중심의 █████ (사회 민주주의 노동당 내 다수파) 혁명 ██████ 정부 수립 내전[백색군 ↔ 적색군] 발생

05	러시아 혁명(1917)
혁명 후의 러시아	<p>■의 통치 (1870~19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단독 강화 조약(■ 조약) 체결(1918.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 진영과 러시아측 진영은 이들 사이에 교전 상태가 중단되었음을 선언한다. 이들은 이후 평화와 상호 간의 우호 관계 속에서 살기로 결정한다. 조약 당사국들에 의해 합의된 이전에 러시아에 속했던 선(線) 서쪽의 영토는 더 이상 러시아 주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사국 간에 합의된 선은 이 평화조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제출된 지도에 의해 정해진다. 코민테른 창설(1919) ■ 개혁 : 토지 분배 및 주요 산업 국유화 등 추진 ■[NEP] 추진 :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 극복 목적, 자본주의적 요소 일부 도입, ■~1928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수립(1922) : 소비에트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 통합
	<p>■의 통치 (1879~195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닌 사망(1924) 이후 정권 장악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중공업 육성, 농업 집단화, 1928~), 독재 체제 강화

06	과 진체주의
■의 발생	<p>① 제1차 세계 대전 후 과잉 투자와 생산, 전체적인 소비 시장 축소</p> <p>② 미국 증권 거래소의 주가 폭락(검은 목요일, ■. 10월 24일)</p> <p>③ 전 세계로 확산 → 정부의 통제 경제 정책 강화, ■ 경제의 형성, ■의 확산</p>
자유주의 진영의 대응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스벨트 대통령(32대, 재임 1933~1945)의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인스주의,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농업조정법(1933), 전국 산업 부흥법(1933), 전국 노동 관계법(■, 1935), 달러 블록 형성 <p>공황을 극복하고 자본주의를 새로운 조건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 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다. 대규모의 구제 계획을 실시하고,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의 단축을 권고 해서 기업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노동자에게 양도시킴으로써, 이 계획은 성과를 올렸다. …… 경제적 부흥이 진척됨에 따라 대기업은 차차 강경해져서 루스벨트에 대한 저항을 강화했다. 연방 대법원은 루스벨트의 2대 법률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 부흥법과 농업 조정법의 핵심적인 조항 대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따라서 그것이 무효임을 선고했다. …… 1936년 루스벨트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재선되었다.</p> <p>-『세계사 편력』 -</p>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맥도널드 거국 내각 결성(1929), 국가 재정 삭감 ■ 블록(오타와 영국제국 경제 회의, 1932)

06 대공황과 전제주의		
자유주의 진영의 대응	<p>프랑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파 인민전선 내각 수립(1936), [] 블록 형성 	
[]의 등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지상주의, 일당 독재, 군국주의, 팽창주의, 언론과 사상 통제, [] 운동 탄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후 물가 폭등, 실업자 증가 → []가 파시스트당 결성 → [](1922) → 일당 독재 체제 구축 → [] 침공(1935~1936) → 국제 연맹 탈퇴(1937) → 알바니아 침공(1939) <p>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혼란한 이탈리아의 상황을 틈타 무솔리니는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검은 셔츠단' 등의 파시스트들에게 로마 진군을 명하였다(1922). 로마 진군 직후 무솔리니는 국왕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다.</p>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사회 혼란 []의 총선 승리(1932) → 히틀러의 총리 취임(1933) → 국제 연맹 탈퇴(____) → 히틀러 총통 취임(장검의 밤, 1934) → 반유대 정책 추진, 재무장 선포(1935)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부 강경파의 쿠데타(5·15 사건, 1932), 군국주의 가속화, 엔 블록 형성 만주 사변(1931) → 만주국 수립(1932) → 국제 연맹 탈퇴(1933) → 중일 전쟁 도발(1937), 난징 대학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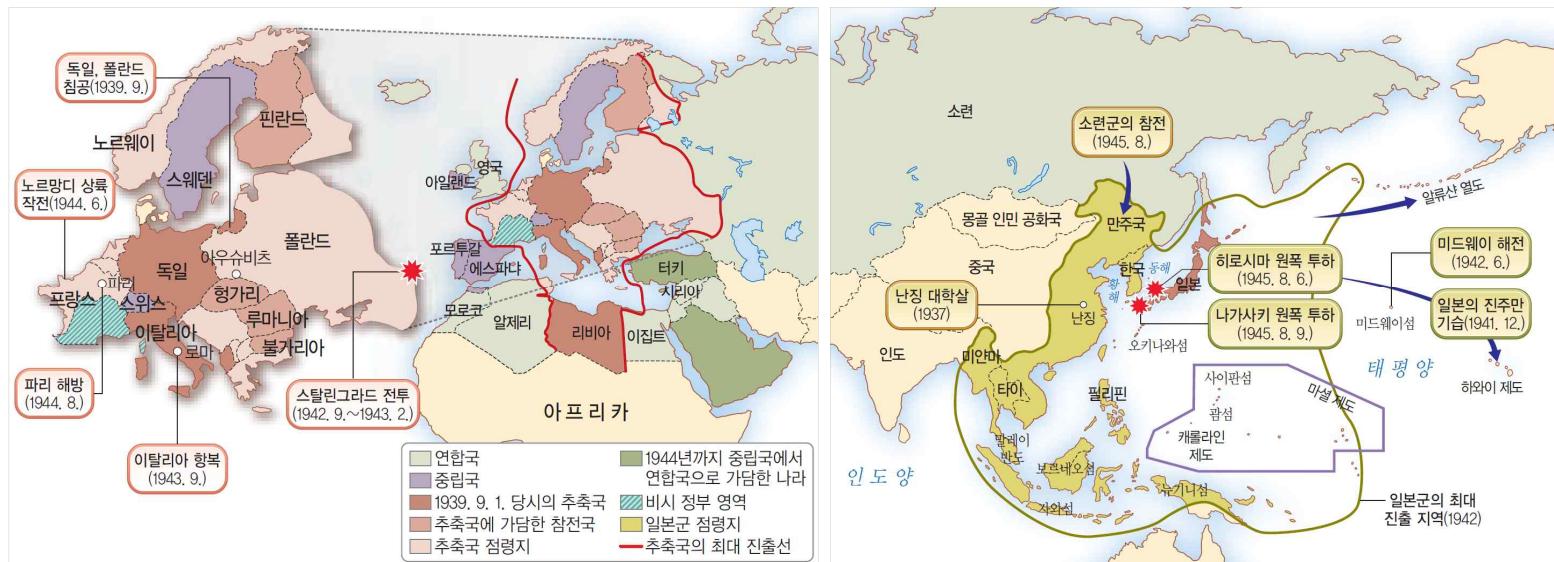
07 제2차 세계 대전		
전쟁 전 유럽의 상황	[] 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코 군부 세력의 반란(모로코, ____) → 이탈리아·독일의 지원 → 프랑코 정권 수립(____)
	3국 방공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일본의 방공 협정(1936) → 이탈리아 가입(____년)
	독일의 팽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인란트 점령(1936) → [] 병합(1938) → 체코슬로바키아의 [] 지방 요구 → 뮌헨 회담에서 수용(1938) → [] 점령(1939) → 단치히 회랑(폴란드) 요구 → 영·프·폴 상호 원조 조약 → [] 조약 체결(1939. 8월)

08 제2차 세계 대전

① 독일의 [] 침공(1939. 9월)

1939년 9월, 독일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기갑 사단의 전차와 장갑차를 주력으로 삼아 기동력과 화력을 높인 지상 작전 부대를 앞세워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그 당시 폴란드의 병력은 100만이 넘었지만, 탱크나 장갑차 등 전투 장비는 독일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 결국 독일의 우수한 장비와 강력한 총이나 포 등의 무기가 가지고 있는 힘 앞에 폴란드 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한편 독일과 [] 조약을 맺어 폴란드 분할에 합의한 바 있는 []도 폴란드 동부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까지 진군했고, 끝까지 저항하던 폴란드는 결국 독일과 []의 손에 분할 점령되고 말았다.

- ②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포고 → 독일의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침략(1940. 4월)
- ③ 뮌헨 다이나모 철수 작전(처칠, 1940. 5~6월)
- ④ 나치의 파리 점령과 [] 수립(1940. 6월) ↔ 드골의 [] 결성(영국 런던, 망명 정부), 프랑스 국내 레지스탕스 운동
- ⑤ []의 그리스, 북아프리카 침공(1940)
- ⑥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 표방하며 [] 침략 ↔ 미국, 영국 등이 자국 내 일본 자산 동결과 각종 원자재의 일본 수출 금지
- ⑦ 독일의 [] 영토 침격(1941. 6월) → [] 전투(1942~1943)에서 소련의 승리
- ⑧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 봉쇄(1941) → 일본의 [] 기습(1941. 12.) → [] 발발 → 미국의 [] 해전 승리(1942. 6월)
- ⑨ 이탈리아 항복(1943. 9월) → [] 회담(1943. 11월) → [] 상륙 작전(1944. 6월) → 파리 해방(1944. 8월)
- ⑩ [] 회담(1945. 2월) → 독일 항복(1945. 5월) → [] 회담(1945. 7월)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 일본 항복(1945. 8월)

발발과 전개
(1939~1945)

08 제2차 세계 대전	
전쟁 중 평화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담(1943. 11월) : 미·영·중, 일본과의 전쟁에 협력할 것을 협의, 일본의 영토 처리 합의 테헤란 회담(1943. 11~12월) : 미·영·소, 3국의 협력과 전쟁 수행 의지 표명, 이란의 독립과 주권·영토 보전 약속, 회담(1945. 2월) : 미·영·소, 독일 처리 문제 협의, 소련의 대일 전쟁 참여 결정 회담(1945. 7월) : 미·영·중, 카이로 회담 재확인,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전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개별 조약 체결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 군사 재판 개최 : 재판(1945~1946), 극동 국제 군사 재판(도쿄 재판, 1946~1948) , 영국, 프랑스, 의 분할 관리 → 의 동서 분단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1951. 9월) → 의 주권 회복 오스트리아의 중립국화
[UN] 창설 (1945. 10월)	<p>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1. 8월) : 루스벨트~처칠,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여 창설의 기초 마련 샌프란시스코 회의(1945. 6월) : 국제 연합 헌장 채택 → 51개국이 참가하여 정식 출범 <p>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경제 개발, 사회 발전,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 연합 헌장'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국제 연합 헌장 제7장에서는 평화 파괴로 판단될 경우, 군사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p>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보장 이사회와의 결의가 총회의 결정보다 우선 상임 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의 행사 → 국가 이기주의 심화 부작용, 냉전 논리에 좌우됨 국제 연합군(유엔군)을 파견하여 국제 분쟁에 무력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됨